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전자문화지도에 거는 기대

아직은 조금 낯선 전자문화 지도란 말은 '이카이(electronic culture atlas information)'의 약어로, 96년 루이스 령카스터 교수 미국 버클리대가 기획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전자구적 차원에서 인류의 문화를 전자지도로 옮기는 작업이다. 지도라는 공간 위에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적 시간을 크게 놓는다는 것이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결상'이 전자문화 지도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되는가를 살펴보자.

문화지도에서는 불상에 관한 정보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수인이나 옷깃의 변화와 같은 미세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시대별 특징을 읽어내고, 한 시대를 끝짓는 문화적 양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범세계적인 위치 정보 체계인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통해 구체적 지리 공간 위에 표현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자 문화지도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주목이 있기에 강력히 희망한다.

첫째 정보 단위를 미세한 부분까지 나누고 유형화함으로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지도의 정보들은 활자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한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정보 가공의 최고 형태를 창출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자체가 국제적 형태

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쉽게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종립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스님이나 이혜은(중국대 지리교육과 교수) 같은 분들이 불상과 사찰을 소재로 문화지도의 전범을 제시하면서 한국문화 전반에 걸친 문화지도를 견인해



내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계획을 세우고 향후 불교계의 작업 성과를 모델로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문화지도제작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보물·국보급 문화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불교 문화재를 보더라도 이 일만은 불교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곧 한국불교는 인류 문화사상 자랑스런 족적 하나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윤재학 <취재2부 부장>



희망이 보인다

백두대간의 마루에 서서 멀리 가야산을 바라보며, 파도 치듯 밀려오는 이 땅의 산하를 조망해 봅니다. 참으로 도도한 흐름입니다. 이를 멀리 손(神)이라 해야겠지요. 우리에게 세상살이도 저와 같아지기를, 새해 아침의

원으로 삼아 봅니다. '남이다가 좋은 날(日是好日)'이라 했듯, 순간순간이 불국토의 원년이길 간절히 빌망해 봅니다. (재공=순재식·사진작가)

## “지역사회 기여하는 사찰”

### 종단·사암련·지자체 연대 사회-문화 활동 강화

조계종 포교원과 24개 교구본사가 올해부터 포교네트워크 구축, 교구본사 특성화 사업 등 본격적인 지역불교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 전국의 각 사암연합회와 사찰들도 올해 정부가 선정한 지역문화의 해에 발맞춰 지자체와 지역전통축제를 공동주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대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지역불교활성화의 전망이 밝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민은)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사찰이 연계할 수 있는 포교프로그램 개발 및 포교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포교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조계사와 용주사, 봉선사, 수암사와 인천 등 지역별 포교사가 되는 사찰을 묶어 수도권포교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신도시도 등에 적극 나선다. 또 지역 내 주요연안들은 포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사찰들이 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도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사업 실행에 나선다. 특히 9교구본사는 전법단을 구성하고, 24교구본사는 불교세 취약 지역별 포교대회 개최한다. 5

교구본사는 지역별 교양대학을 설립하여 지역불교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구본사들은 지난해 전국 교구본사주지연수회에서 포교의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는 198개 사업을 선정하고,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의 각 사암연합회도 지역불교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안동 사암연합회는 안동시가 주최하는 안동국제페스티벌 문화행사 가운데 범패공연과

유증제를 주관하기로 했다. 익산 사암연합회도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청년불자포교사업과 시민단체 연대, 익산 미륵사지석탑 일괄정리 건설 반대 운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지광스님(조계종 총회의원은)은 '지자체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사찰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계층포교 활성화, 지역사회에서의 사찰의 지도적 위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7면)

김원우 기자  
(www.buddhapa.com)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01년 새해특집 28면 발행

미리보는 2001년 불교계	5면
지역불교 활성화 하자	6·7면
신년좌담 '대장경을 읽읍시다'	8·9면
가까이서 본 큰스님-송담스님	14·15면
제6회 신행수기 입상작 발표	22·23면

불교취약계층을 위한  
국내 최대 인터넷 불교서점  
여사(윤재학)  
www.yosamun.com  
Tel: 02-737-0695  
Fax: 02-737-0696

일심불원  
불사 및 불교용품 일체  
02-725-2030  
02-725-2040

천년태양 여의주 입에물고  
장엄한 아침龍이  
거룩하게 솟아올라  
대수주를 토해 내니

玉龍子 스님의 구도적 예술세계

신사년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시방법계에 충만하소서  
경제번영 민족평화통일 불교중흥기원 불교문화계전

## 玉龍子 석지형 스님 大吉祥圖 作品展

修行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玉龍子 석지형 스님이 불국경도 성취의 원력으로 20여년간 吉祥圖를 연구하고 정진하여 1996년 5월 7일 제1회 작품전을 거행한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금년봄 제5회전을 성황리에 거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國대사관등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수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玉龍子 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인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외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 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정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나라의 번영 민족의 평화통일 불교중흥 동참불자님의 길상성취를 기원하며 무려 10여m에 이르는 대작등 그동안 정성을 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 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신년기원전 기념법회 : 2001년 1월 1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인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30-1 인사동사거리-안국역 중간지점 TEL:733-4448~9)  
※ 작품전 : 2001년 1월 10일(수) 오후 2시 ~ 1월21일(일) 오후 7시(12일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 기념불교문화강좌 : 1월10, 11, 14, 17, 18, 21일은 오후2시~오후3시30분, 1월12, 13, 15, 16, 19, 20일은 오전11시~12시30분  
※ 작품전 기간중 불교계 권위 법사님의 기념 강연 계속됩니다.  
※ 기념불교문화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통문화행사  
※ 참석하신 불자님께 대길상 호신불 목걸이, 교통안전호신불, 기념법서, 기념법주, 공부하는 자녀를 위한 길상도 용품, 비디오텍스트를 드립니다.

玉龍子 석지형 스님 미국인명특허 특허인증기관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 日本정부 특허청 특허인증 기관 인정받은 세계적 작품입니다. 玉龍子 스님 대길상도는 전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FAX:511-6216  
TEL:511-6210~5/3443-9871~7/3446-2158,2185